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확보

- 임기근 제2차관 주재,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3건의 예타·타재 사업 통과로 감염병 대응력 강화 및 지역 산업 기반 확충 기대

기획재정부는 2025.11.27.(목) 13: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①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내에 음압 179병상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대구광역시 군위군 호령면 21.2km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대구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는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 신축하며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거점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물류효율성을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 임 차관은 “새정부들어 대형 재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기민하게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5-5410)
		담당자	사무관	이세환 (lshwan@korea.kr)
		담당자	사무관	정재우 (zeus7009@korea.kr)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 사업 현황****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관리청)**

- (사업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병원內
- (사업규모) 부지 6,626㎡, 연면적 83,110㎡
- (총사업비) 4,356억원

②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국토부)

- (사업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대구광역시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
- (사업규모) 총연장 21.2km, 4차로 신설, IC 2개소, JCT 2개소
- (총사업비) 15,627억원

③ 대구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농식품부)

-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278,026㎡, 건축연면적 155,654㎡
- (총사업비) 4,403억원